

기존보다 25% 싼 실손보험 나온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해결 목적... 내년 4월부터 분리 적용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의료보험상품이 내년 4월부터 확 바뀐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싼 '기본형' 상품과 도수·체외충격과 치료 등 진료군별 3개 특약으로 분리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다음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6월 말 기준 가입자가 3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치료행위를 획일적, 포괄

적으로 보장하는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가입자의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과잉진료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납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된다.

특약은 도수치료, 체외충격과 치료, 증식치료와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MRI로 불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로 나뉜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대신 특약은 입.통원 구분 없이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다수 질병, 상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형 상

품에 가입한 뒤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야 한다.

일례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기본형의 월 납입보험료는 1만4309원으로 현행 1만9429원보다 26.4% 저렴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품 가입자가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하지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보험사들은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팔지 못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암·사망보험 등의 상품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

은 허용한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사가 2017년 중에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가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상품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연계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기재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 자문기구도 설치.운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23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

날씨는 추위도 사랑 온도는 '후끈'

전개공 - 여경협 전북 - 한은 전북, 성금 기탁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겨울 철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희망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1년동안 사무실이나 호수머리에 있는 동전을 모은 '희망저금통' 50여개도 함께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추운 날씨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기부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분위기 선도와 확산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고재찬 사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추위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 같다"며, "우리공사는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이웃사랑과 사회환원 경영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도

지난 22일 연말 아픈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밤 한끼 차려주고자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박영자 회장과 임원, 회원은 전주 시장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의 '발굽은 아이없는엄마의 밥상에 성금 320만원을 기탁했다.

박영자 회장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여성기업이 먼저 나서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주시내 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 전달 및 무료급식을 지원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내 이웃에 대한 나눔을 더욱 활발하게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OLO 안테나숍에서 지역우수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백 전주점, 설맞이 관측활동 본격화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설맞이 관측활동을 본격화한다. 설날 특수잡지에 나선 '설날 선물 상담팀'은 백화점 임직원 6명으로 구성돼 도내 지역의 기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방문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 기존 업체뿐 아니라 신규 시장 개척에도 힘쓰며 상담 주문에서 배송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현장 방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고객의 편리를 우선하고 있다.

상품권 대량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은 보다 알뜰한 구매를 위해 마련된 롯데만의 특별 보너스, 3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시 3만원 추가, 1,000만원 이상 구매시 20만원 추가, 3,000만원 이상 구매시 75만원 상품권을 추가증정 하는 등 상품권 구매금액에 따라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선물상담팀 ☎ 063-289-37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농심을 가슴에 안고 서울 도심으로

동김제농협, 지역우수농산물 판촉행사 실시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OLO안테나숍에서 지역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를 실시했다.

MOLO안테나숍은 동김제농협과 김제육가공업체간 동김제지역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경로를 활용해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같이 취급해 수도권지역매장에 판매하는 준로컬푸드형 운영매장이다.

이번 판촉행사는 동김제농협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수도권매장을 활용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 대한 사은행사와 더불어 고객 확대를 위해

저렴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행사에는 딸기, 사과, 배 품목을 중심으로 무료시식과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현장판매가 이뤄졌다.

한편 MOLO안테나숍은 지난해 10월 개장했으며 개장초 일매출 약200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7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방문객수는 개점당시 1일 평균 100~150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150~2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커리어 캠프 성료

전북은행문화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2016 하반기 커리어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진로와 취업을 놓고 고민하는 도내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역량 및 리더십 등을 개발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기간동안 학생들은 비전설정, 드림리스트 작성, 미래의 직업트렌드 탐색,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및 액션플랜 작성, 이미지 메이킹, 리더십 훈련 등 취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 참여형 강연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안재용 기자

한전 남전주지사, 삼천남초 방문 미래 꿈나무 대상 방한용품 지원

한전 남전주지사는 지난 22일 복지학교로 지정된 전주삼천남초에 방문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외투, 장갑, 운동화, 양말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학교 내 교육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 가장 및 한 부모 아이들 10세대를 대상으로 지사장 및 한전 사회봉사단 대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됐다.

정광영 지사장은 "미래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봉사자들과 학교를 찾았다"면서 "항후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정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경진원, 中 수출입교역상품회 참가기업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무역촉진단 단체전시회 파견사업으로 내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17 중국수출입교역상품회(Canton Fair)'에 참가할 중소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진원은 무역촉진단 단체전시회 파견사업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캠프에는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약 20%가 이 전시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중국 바이어는 물론 유럽과 미국 바

이어가 참여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플랫폼으로도 유명하다. 올해에는 총 2만451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8만5506명에 달하는 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진원은 올해 5월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10개사 공동관을 구성해 202건의 수출상담 및 1,573만불의 상담실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신청자격은 업력이 3년이상된 생활 소비재, 식음료 등의 기업으로 원산지 증명서, 자사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ba.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평가 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 송부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